

“소리가 안들려요” 원격수업의 한계

초등 사상 첫 온라인개학...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중앙초 찾아 상황 점검

초등학교에서도 사상 처음 온라인개학과 함께 원격수업이 시작됐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전주중앙초등학교를 찾아 원격수업을 맞이하는 학교와 학생들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주중앙초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부족분을 사전 조사해 도교육청에서 태블릿PC를 이미 대여했다.

16일 오전 6학년 1반 담임교사 김원석 선생님은 온라인 밴드 방송을 이용해 수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1인 방송을 보며 실시간 채팅으로 선생님과의 소통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개학을 맞아 교장선생님이 직접 출연해 개학 축하 인사말을 전했고, 사이버상의 예절, 지켜야 할 공통 규칙 등의 안내가 이뤄졌다. 6학년 1반은 투표기능을 이용해 매일 출결체크를 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위해 학생이 직접 시간표를 구성하는 수업도 계획하고 있었다.

학생에게 지난주에 나눠준 다이어리를 활용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등도 소개했는데,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채팅 창에 수시로 의견을 남겼다. “소리가 안들려요” 교육장님이 교실을 급습했네요.” 등의 자유스러운 대화가 오고 갔다.

수업을 마친 김원석 선생님은 “우리반 아이들과 휴업기간에도 자주 활용했던 수업 방식이어서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 오늘은 정식 개학날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실시간 방송은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주 2회 정도만 운영하고 대부분은 과제를 제시하거나 양질의 콘텐츠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 유선 전화를 통한 소통 중심으로 앞으로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온라인 수업이 새롭고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도 아이들도 얼마나 출석수업을 기다리는지 모르는 다. 온라인 방송 수업을 하다보면 혼

자서 소하는 기분이 들어 애들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하고 또 3월부터 두달째 지속되다 보니 오늘 시작인데 벌써 지치기도 한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김 선생님을 “오늘 이용자가 많아서인지 교사가 말하는 내용이 15~30초 뒤에나 학생들에게 전달돼 실시간 방송이지만 동적인 수업이라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라북도의 경우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를 기본 플랫폼으로 구축해 수업자료를 올리고 출석을 체크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교사들은 밴드, 카톡, 문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보완하고 있다”며, “실제로 4월 16일 오전, 대다수의 교사와 학생이 활용하는 e학습터의 경우 접속은 되지만 동영상 등이 잘 구동되지 않아 애가 타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학교로 쇄도하

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오전에 한꺼번에 접속을 할 경우는 모두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초·중등간의 시간을 나눠 이용하거나 화업과 출석이 중요한 중·고등학교를 위해 초등은 다른 플랫폼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중앙초등학교의 원격수업을 포함한 하영민 교육장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 출석수업을 하게 되면 이번엔 쌍은 온라인교육 지도 경험이 병행돼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평소보다 열 배 이상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해 주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 1,2학년의 경우는 교사들이 준비한 학습꾸러미와 EBS 방송 등을 활용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가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16일 중 1~2학년과 고 1~2학년, 초 4~6학년의 추가 온라인 개학을 맞아 남원용성중학교를 방문, 원격수업 방식과 학생출결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승환 교육감, 남원용성중 온라인 개학 참관

김승환 교육감은 16일 중 1~2학년과 고 1~2학년, 초 4~6학년의 추가 온라인 개학을 맞아 남원용성중학교를 방문, 원격수업 방식과 학생출결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된 지 벌써 일주일 이 지났다”면서 “일주일 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니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

는 것을 느꼈다”고 말문을 폈다.

이는 어떠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능동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그룹이 교사라는 평소의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전북지역 교사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평소 교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신뢰가 증명되니까 교육감으로서 일할 맛이 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원격수업 콘텐츠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남원용성중에서는 양예슬 교사가 ‘온라인 학생출결관리 방법’을, 김현진 교사가 ‘온라인 수업자료 탑재 및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또 전종희 교사는 줌을 이용한 쌍방향 과학 수업을 선보였다.

전 교사는 “e클래스에 올린 학습 동영상 시청하고 학생들이 궁금한 내용을 다음카레나 카톡으로 문의하면 일주일내 두 차례씩 실시간 수업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군민과 체육으로 소통”

정봉은 진안군체육회장, 전지훈련 유치·현장중심 강조

“진안군민의 곁에 있는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정봉은 진안군체육회장은 민간체육회의 초석을 다지기위해 기존 체제를 탈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 회장은 민간체육회의 방향 설정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진안군과 진안군의회, 체육인과 군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 회장은 진안군체육회 발전방안에 대해 ▲예산확보 ▲체육발전위원회 구성 ▲체육인 후진양성 ▲원로체육인 예우 ▲생활체육 활성화 ▲투명한 예산집행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정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것이 진안군을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며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낼 수 있는 팀을 많이 유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년 365일 체육으로 소통하는 체육회, 군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체육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시켜 믿음 줄 수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했다. 이와함께 정 회장은 지역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중심 체육회 운영방안도 구상중이다.

큰 체육행사 이외에도 사무국 직원들을 각종 체육현장에 파견, 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군민통합체육대회를 비롯해 읍·면에서 이뤄지는 각종 체육행사 등도 함께 하려한다”며 “1년 365일 체육으로 소통하는 체육회, 군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체육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시켜 믿음 줄 수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초등 1·2학년 ‘배움꾸러미’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전북 배움꾸러미’를 개발해 제공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는 20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사각지대에 있는 정보소외계층을 비롯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과 맞벌이 가정에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 배움꾸러미는 도내 현직 초등교사 8명이 협력해 개발한 ‘통합교과(봄)’와 ‘안전한 생활’의 총 2주분 학습활동지다. 전북수업샘터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파일로 탑재해 단위학교에서 재구성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에서 개발한 학습활동지는 국

어와 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고자료가 적은 ‘통합교과’와 ‘안전한 생활’의 자료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다. 이에 전국단위 초등교사 동학년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공유돼 양질의 콘텐츠와 신속한 대응, 우수한 디자인 호환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밖에도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맞게 기본학습 준비물(색연필, 색종이 등), 수업자료(오커리나, 풀림기 등), 놀이감, 권장도서, 학부모 안내 자료 등의 배움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준비한 배움꾸러미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충실하게 도와줘 모든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